

중국(남경) 출장보고서
-제4차 세계도시포럼-

2008년 11월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

이왕건 연구위원

내용 목차

1. 서 론

2. 개최목적 및 추진전략

1) 개최배경과 목적

2) 추진전략

3. 세계도시포럼 진행상황

1) 개최 현황

2) 전시공간 배치현황

3) 회의 프로그램과 참여현황

4. 결론

1. 서 론

제4차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4)이 2008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중국의 역사 깊은 도시인 장쑤성(Jiangsu Sheng) 남경(Nanjing)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유엔 인간거주회의(UN-HABITAT)와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가 공동 주최하고 중국 공안부, 환경보호부, 장쑤성 정부가 공동 후원하였다. 이번 행사의 실질적인 주관조직인 남경시에서는 세계도시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상당한 준비를 하였다.



<그림> 1 세계도시포럼 상징물과 행사주최기관

세계 각 국에서 온 국제 행사참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남경국제공항(Nanjing Lukou International Airport)에 별도의 입출국 심사대를 설치하였고, 공항에 수많은 자원봉사자(volunteer)를 배치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완공된 남경국제



<그림 2> 남경국제전시중심까지 연결된 경전철 1호선

전시중심(Nanjing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는데, 행사기간동안 등록한 참석자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제공항에서 행사장까지 가는 간선도로변, 남경역, 호텔 등 주요시설에 국제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수많은 광고물을 볼 수 있었다.

세계도시포럼은 전문성이 높은 국제적인 학술대회라기보다는 세계 각 국에서 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참석하여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거나 교육과정



<그림 3> 행사개최를 알리는 광고물

(training events), 연계프로그램(Networking event), 세미나 등 다양한 형식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종합도시박람회의 성격에 가깝다. UN HABITAT소속 전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정부·민간연구소, 지방정부 연합, 비정부조직(NGO), 시민단체, 민간건설회사 등을 총망라



<그림 4> 남경국제전시중심 행사장

한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다루어진 주제도 재해, 기후변화, 여성, 주택, 도시빈민, 환경, 시민참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세계도시포럼은 개인차원에서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대회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행사이다. 비정부조직의 경우 자신의 조직과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도시빈민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자리로 국제적인 연대(network)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행사경비는 중국 120만 달러, 회원국 80만 달러를 포함해 2백만 달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행사 참여가 어려운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는 참여경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일부 국가의 참석자들이 여행비용을 청구하는 창구(DSA payment room)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2. 개최목적 및 추진전략

1) 개최배경과 목적

중국이 4차 세계도시포럼을 개최한 것은 일차적으로 지난 30년 간 추진한 개혁, 개방의 성과를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 행사 안내판에도 개최목적 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달성한 도시 개혁과 개방의 놀라운 성과를 외부세계에 알리는 것”(Impressive Achievements in China's 30 Years of Urban Reform and Opening to the Outside World)이라고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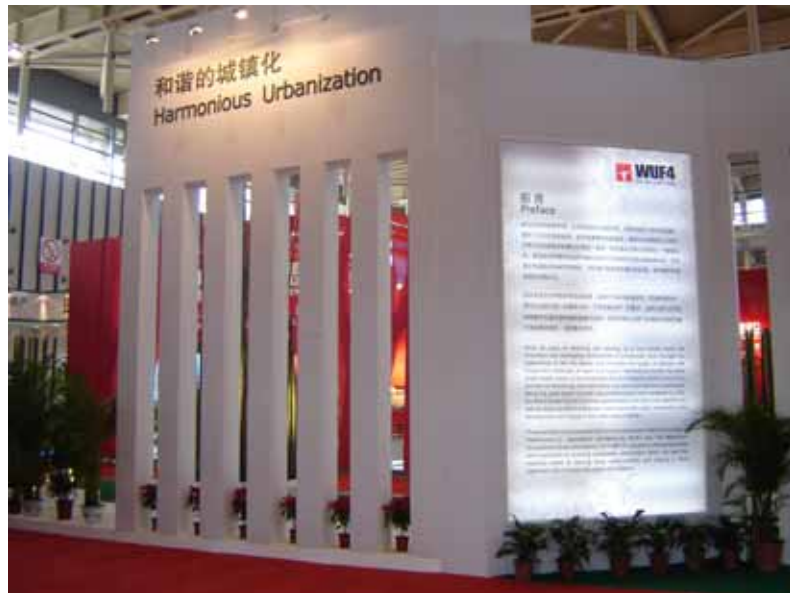


<그림 5> 행사 개최목적을 대변하는 광고판

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중국도시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졌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 중국은 심각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매년 천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지역, 내륙과 해안지역, 도시민과 농민간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재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저임금의 농촌출신 노동력이 도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임금 상태에 있으며 불경기시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한계노동력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고민을 대변하듯 이번 포럼의 또 다른 목적은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Pursuing Harmony in rapid Urbanization)이다.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듯 4차 세계도시포럼의 공식주제는 “조화로운 도시화: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도전”(Harmonious Urbanization: The Challenge of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으로 결정되었다.

2) 추진전략

UN-HABITAT와 중국정부에서는 이번 포럼의 주제로 선정된 “조화로운 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부문, 경제부문, 환경부문, 문화·세대부문, 공간부문 등 5가지 핵심부문에서 조화(harmony)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에서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 유무형의 도시자산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① 사회적 조화

UN-HABITST에서는 도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슬럼(slum)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수, 교육시설, 비위생적인 환경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과밀상태로 있는 슬럼이 개발도상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인구의 1/3, 아시아의 경우 도시인구 13억 명의 42%에 해당하는 사람이 슬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슬럼거주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시에서 극심한 빈부격차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비전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대통령, 시장과 같은 최고정책결정자가 도시의 빈곤과 슬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조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슬럼을 줄이는데 성공한 국가나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정리하였는데 i) 문제인식과 공약으로 채택, ii) 제도개혁, iii) 정책개혁과 제도적 장치 강화, iv) 효과적인 정책실행, v)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vi) 단계적 실천 등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② 경제적 조화

제3세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아프리카와 남미의 경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는 구조적이고 시스템차원의 결함으로 인해 부의 분배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홍콩, 호치민, 방콕, 마닐라 같은 일부 아시아의 도시에서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높아지면 사회, 경제, 정치적 불안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소득계층간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정치적 불

안과 경제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범죄예방과 같은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투자가 증대되면서 경제발전, 사회서비스 제공, 도시기반시설 건설 등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비용을 상당부분 지출하게 된다.

UN-HABITAT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특정계층에 집중되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유발하며 재분배에 필요한 비용을 상승시키며, 투자재원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환경적 조화

도시가 잘 계획되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며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차원에서는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시가지주변의 녹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줄이도록 요구받게 된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의 질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구조(urban form), 압축형 고밀 개발,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 도입이 중요한데, 계획적 관리를 실현한 선진국 도시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도시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UN-HABITAT에서는 압축개발, 청정에너지 사용,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축소가 에너지 효율적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향후 수십 년간 해수면을 높이는 효과를 유발하게 되며 해변도시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현재 세계인구의 60%가 해변 저지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 해수면으로부터 표고 차가 10m 미만의 도시지역이 가장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도시저소득계층이 상습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장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주토록 하거나 배수시설을 갖추어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④ 문화·세대간 조화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자산을 보호하는 것처럼 인적,

사회적, 문화적, 지적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시에 산재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공간적 불평등, 경제·사회적 불평등, 대도시권의 물리적 확장, 도시지역(city regions)의 성장과 같은 변화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UN-HABITAT에서는 서구형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제품, 깨끗한 마무리 처리방식, 현대적인 설계가 강조되면서 중심도시나 구도심에 있던 역사·문화적 건축물이 철거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관리소홀, 노후화에 따른 손실,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정부는 문화유산을 훼손시키지 않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소의 질"(quality of place), "문화기반시설"(cultural infrastructure)이 존중될 수 있도록 창조적 수단을 동원하여 비물리적인 도시공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최종적으로 경제성장과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⑤ 공간적 조화

도시화는 지역(regions)에 따라 불균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 공간적, 지역적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접근이 국가개발정책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국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도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슬럼이 연평균 4%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구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교외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공간적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UN-HABITAT에서는 도시규모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보다는 국가정책, 기업의 성장전략, 글로벌·국가·지역차원에서 개별도시가 가지는 입지적 비교우위가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를 결정하는데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수행하는 경제정책의 방향, 지역별 예산분배방식이 도시의 성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는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며 도시개발사업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투자는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

또한 도시내, 도시간, 도시-농촌간 교통·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시아에서는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나 산업단지(industrial hubs)로 지정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3. 세계도시포럼 진행상황

1) 개최 현황

세계도시포럼은 2002년 4월 UN-HABITAT 본부가 있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2회 세계도시포럼은 2004년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3회 세계도시포럼은 2006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회 포럼부터 공식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7> 세계도시포럼 개최지 현황

<표 1> 역대 개최지 및 개최시기

회 수	개최국가/도시	개최시기	비고
1회	케냐/나이로비	2002년 4월	UN-HABITAT본부, 케냐 수도
2회	스페인/바르셀로나	2004년 9월	
3회	캐나다/벤쿠버	2006년 6월	주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turning ideas into action)
4회	중국/남경	2008년 11월	주제: “조화로운 도시화” (harmonious urbanization)

중국 남경에서 개최된 4회 세계 도시포럼의 경우 강원도 홍천에 설치된 UN-HABITAT 산하의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International Urban Training Center)에서 한국대표로 참여하였다. 훈련센터에서는 독자적인 부스를 마련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설된 교육훈련과정을 홍보하



<그림 8> 국제도시 훈련센터 부스

고 있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2009년 9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할 “2009 세계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포럼”(2009 World Sustainable Development City Forum) 겸 “11회 국가 지속 가능한 개발회의”(11th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tion)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였다. 일부 정부기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같은 지역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개별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행사를 주관하는 남경시에서는 세계도시포럼 행사가 국제기구, 세계 각 국의 장관, 시장,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가 대규모로 참석하고 참여인원도 많은 만큼 행사기간동안 일어날지도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장과 주변에 대규모 경찰인력을 파견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있었다. 행사 첫날 모든 참석자들은 등록하도록 요구받았는데, 사진이 포함된 UN HABITAT 카드를

발급해 카드소지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였다. 공항처럼 소지물 검색대를 설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는데 생수처럼 위험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반입은 금지하고 있었다.

일반시민들의 경우 둘째 날부터 행사장 출입이 허용되었는데, 행사장입구에서 길



게 줄을 선 시민들을 볼 수 <그림 9> 행사장 참가등록 현황

있었다. 일반시민들의 경우 세미나, 원탁회의 등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전시물을 관람하는 것만 허용하였다.



<그림 10> 남경국제전시중심 평면도

2) 전시공간 배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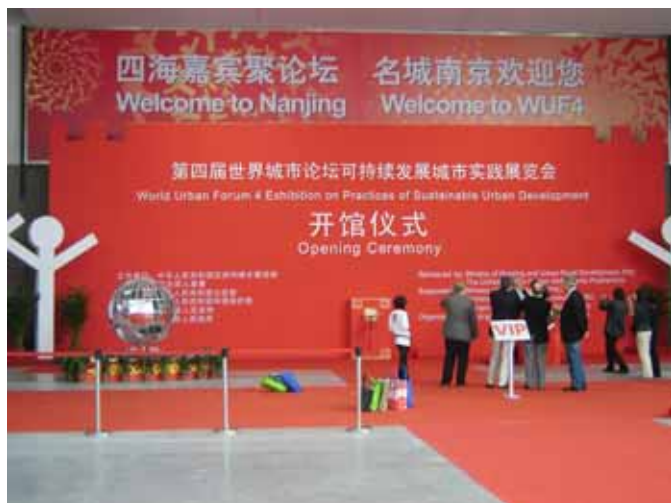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전시공간과 회의공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전시시설물의 경우 대상에 따라 A, B, C, D 등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

A관의 경우 미국, 독일, 필리핀, 프랑스 등 세계 31개국에 있는 국제기구, 중앙정부조직, 국제시민단체, 연구기관, 도시정부 등이 부스를 개설하였는데, 참석자와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다. 국제기구로서는 유네스코(UNESCO), 유엔 인간거주회의(UN-HABITAT),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자본개발기금(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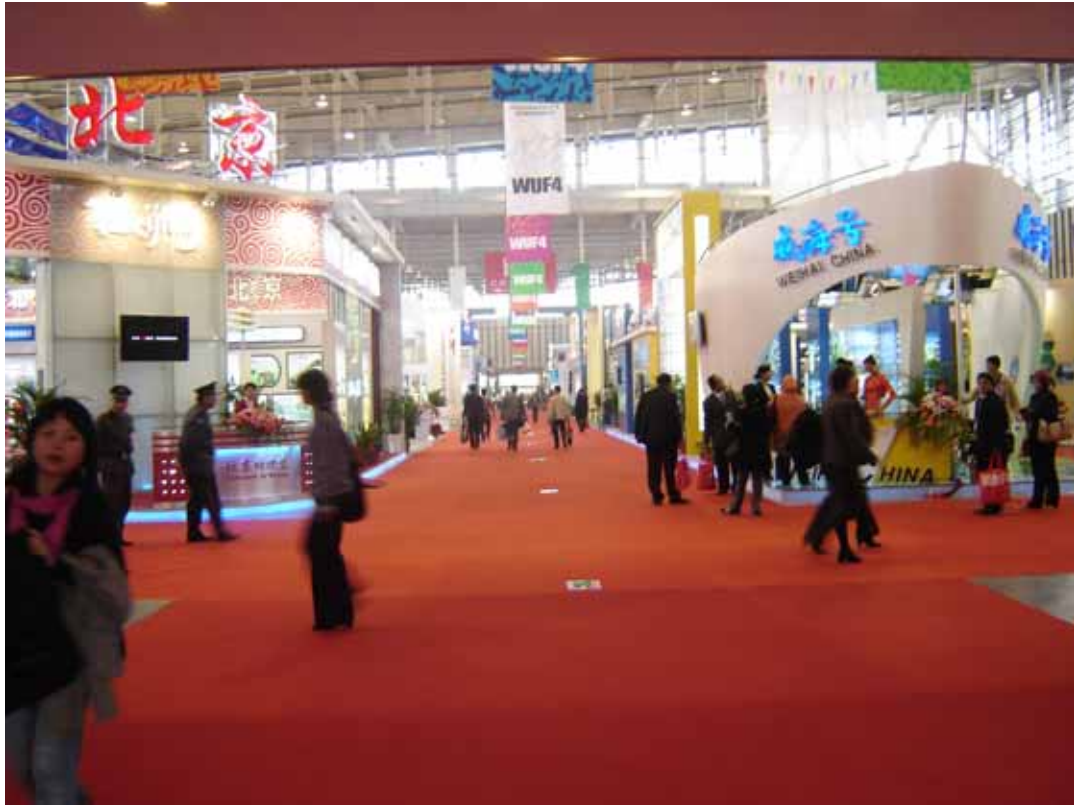
<그림 11> 필리핀 시민단체(좌), 아프카니스탄 도시개발부(우)가 설치한 부스

B관의 경우 중국이 그동안 이룩한 도시화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2007년 말 현재 중국에는 655개 도시가 있으며 이러한 도시지역에 전체인구의 44.9%인 5억9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B관에서는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한 장쑤성의 도시를 제외하고 북



<그림 12> A관과 B관 사이에 있는 세계도시포럼 개막식장

경, 상해, 천진시 등을 포함해 각 성에서 경제발전을 대변할 77개 도시를 엄선하여 그동안의 발전성과와 미래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전시되는 시설물도 다른 공간에 비해 가장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림 13> B관 내부모습



<그림 14> B관에 설치된 시안도시권(Xi'an Dushiquan)의 시안시(西安市) 홍보관

C관의 경우 장쑤성(Jiangsu Sheng)을 대표하는 인구 740만 명의 남경시를 포함해 13개 주요도시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관으로 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그림 15> 장쑤성에 있는 13개 도시를 소개하기 위한 C관

D관의 경우 주로 남경에 있는 20개의 민간 부동산회사를 위한 전시공간으로 배치하였는데, 민간업체들은 아파트, 업무용 고층빌딩 건설 등 그동안 자신의 사업실적을 자랑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소개하고 분양이나 임대를 위해 고객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그림 16> 기업관으로 조성된 D관

3) 회의 프로그램과 참여현황

대표적인 공식행사인 개막식과 폐회 이외에도 총회, 토론회, 연계행사, 교육행사, 세미나, 원탁회의, 특별회의, 기타행사 등 총 8가지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총 207개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은 참여제한이 있는 일부행사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는 관심분야에 가서 듣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총회의 경우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사의 진행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을 가진다. 11월 4일 9시부터는 “도시에 있어서 형평성”(Equity in Cities), 11월 5일 9시부터는 ‘안전하고 생산적인 도시’(Safe and Productive Cities)라는 제목으로 1시간동안 총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경우 대강당처럼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일반참여자들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었다.

총 6회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사전에 국가나 소속단체를 대표해 참여할 토론자는 확정되어 있었다. 토론은 조화로운 도시개발(harmonious urban development)과 관련된 특정분야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11월 5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강당에서 “건조환경과 자연환경의 조화”(Harmonizing the Built



<그림 17> 토론회 행사장에서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국의 찰스황태자

and Natural Environments) 라는 제목으로 4번째 토론이 개최되었다. 이 토론에는 국제도시훈련센터의 대표(Director)로 있는 김귀곤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생물종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한국에서 추진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

첫째, 토지이용측면에서 생태계획(ecological pla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둘째, 도시기반시설(Infrastructure) 차원에서 도심에 있는 청계천 개발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소, 기후조절효과 등 개발에 따른 복합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또한 새 정부 들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였는데 다른 참석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연계행사의 경우 HABITAT 관계자가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최되었다.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제별로 총 73회의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전체 행사중 가장 횟수가 많은 실정이다.

교육행사의 경우 UN기관과 국제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세미나(training seminar)형태로 진행되었다. 다루어지는 주제는 공간계획, 지방경제, 기업창업, 역사적인 지역의 재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각 주제별로 3시간씩 총 23회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한 국제도시훈련센터(International Urban Training Center)에서는 포럼 마지막 날인 11월 8일(목)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208호에서 도시에서 “기후, 생물종 다양성,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to Climate, Biodiversity and Disaster Management in urban area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주로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제발표의 목적은 첫째,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생태학적인 복원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도시지역에서 생물종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태계(ecosystem)를 복원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와 혜택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 셋째, 한국의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생태복원계획과 실행전략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UN-HABITAT가 주관하는 세미나의 경우 “조화로운 도시화”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



<그림 18> 세미나 개최현장

를 대상으로 총 70회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되는 내용은 각 기관이나 시민단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자뿐만 아니라 방청객들도 참여시켜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적인 차원의 연구보다는 실천방법, 경험, 성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2> 회의 유형별 특성과 개최현황

유형	특 성	개최 수
총회 (Plenary sessions)	·포럼과 관련된 전체행사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 ·행사의 진행방향을 제시 ·진행시간: 1시간	2회
토론회 (Dialogues)	·일반참석자들에게 개방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관련된 특정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진행시간: 2시간 30분	6회
연계행사 (Networking events)	·UN-HABITAT 관계자가 주관하여 행사진행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및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진행시간: 2시간	73회
교육행사 (Training events)	·UN기관과 국제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 ·공간계획, 지방경제, 창업, 역사지역의 재생 등 다양한 주제 ·진행시간: 3시간	23회
세미나 (HABITAT Seminars)	·UN-HABITAT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성과와 사례 소개 ·“조화로운 도시화”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발표 ·진행시간: 2시간	70회
원탁회의 (Roundtables)	·장관, 시장과 같은 특정직위나 계층을 중심으로 회의진행 ·일부회의의 경우 참석이 제한 ·진행시간: 2시간	8회
특별회의 (Special sessions)	·기존 회의 형식에 포함시키기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 ·진행시간: 1~3시간	9회
기타행사 (Side and special events)	·행사진행과 관련된 관계자 회의부터 리셉션, 별도의 회의공간을 배당 받지 못한 주제회의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 ·일부 행사나 회의의 경우 사전에 확정된 사람으로 참석인원을 제한 ·진행시간: 1시간 30분~2시간	16회

자료: UN-HABITAT, 2008, The Fourth Session of the World Urban Forum

원탁회의(Roundtables)는 각 국에서 온 장관, 시장, 여성대표, 의원, 청년대표, 도시연구가 등 특정 직위나 전문가집단 등이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5시간에 걸쳐 마라톤회의가 진행됐다. 일부회의의 경우 사전에 명단이 확정된 인사로 참석자의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체적으로 8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별회의(Special sessions)의 경우 앞에서 열거한 회의형식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합하거나 모호한 내용들을 모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1월 4일의 경우 UN-HABITAT는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 민간부문에 대한 자문(consultation)이 이루어졌는데, “조화로운 도시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11월 5일에는 수요일에는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상담(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sultation)이 이루어졌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조화로운 도시를 위한 동반자 및 촉진자로서 시민사회 조직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회의시간도 주제의 성격에 따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다르다.

기타행사(Side and special events)의 경우 행사진행과 관련된 관계자 회의부터 리셉션, 별도의 회의공간을 배당 받지 못한 주제와 관련된 회의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행사나 회의의 경우 사전에 확정된 사람으로 참석인원을 제한되기도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회의시간은 1시간30분에서 2시간까지 다양하다.

4. 결 론

세계도시포럼은 2010년 브라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폐막되었다. 중국 남경시에서 개최된 4차 세계도시포럼은 의도한대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다른 중국의 대도시처럼 개최지인 남경시의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 차량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변을 걸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쾌청할 날씨를 구경하기 힘들 수준이었다.

참여자들이 발표형식(presentation)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좋으나 일부 강좌의 경우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이

생략되거나 발표될 내용을 포함한 유인물이 사전에 배포되지 않고 발표장에서 즉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세련된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전체 행사가 주로 영어/중국어로 진행되어 일부참석자들은 언어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림 19>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현무호수 주변전경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참여요구와 지원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향후 제3세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지만 아직까지는 UN-HABITAT를 포함한 국제조직과 연계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유엔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기관과 시민단체의 경우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2010년 브라질에서 개최될 4차 포럼에서는 향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럼 자체를 유치한다면 도시화과정의 성과와 고민을 공유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UN-HABITAT. 2008. Background paper

UN-HABITAT, 2008, The Fourth Session of the World Urban Forum

<http://www.wuf4.com>

<http://unhabitat.org>